



이 임 사

한국화학연구소 이 서 봉

본인이 한국고분자학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작년말로 별 대과없이 임기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전임 회장님들, 전무이사를 비롯한 간사진,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학회활동을 위하여 기원을 해주신 산업체 회원님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1996년은 우리 한국고분자학회 창립이후 실로 커다란 한 획을 긋는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20번째 맞는 학회 생일을 계기로 이제 유년기를 벗어나 성년의 학회로 자리를 굳게 한 해이기도 합니다. 3,000여명이 넘는 회원수와 타학회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술활동 등으로 이제는 국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인정을 받는 중견학회로 발전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11, 12일 양일간에 걸쳐 대전의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2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를 모든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던 일은 매우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화학회 고분자화학분과회장인 English박사, 일본고분자학회장인 Kamachi교수, 중국화학회 고분자화학분과 회장인 Wang 교수 등 국내외 강사 25명의 초청강연은 20주년을 더욱 빛나게 한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고 다시 한 번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20주년 총회행사의 하나로 유치되었던 IUPAC MACRO SEOUL '96도 대 성황리에 끝낸 것도 우리 학회의 커다란 업적으로 오래 오래 기억될 것이며 참가국의 대표자 모임인 Polymer Summit Meeting에서 각국의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일 또한 길이 추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2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와주신 간부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의 결과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발판으로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지원코자 국제협력기금을 마련한 것도 아주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학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는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논문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질과 양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히는데 전력을 한다면 우리학회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도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우리 고분자학회 회장직을 맡아 이끌어 주실 진정일회장님께서 이러한 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본인 또한 뒤에서나마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회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